

##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용변의 사회기술사\*: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용변-화장실 연결망의 재배치\*\*\*\*

박민주(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

### 논문요약

이 연구는 기술사회사·ANT적 시각에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주민의 용변 생활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은 평등이 아닌 차등, 주민 입장보다 공급자 편의를 지향하도록 설계되었다. 때문에 전력, 배급제, 상수도 등 유관 인프라가 마비되자 주민-화장실 연결망은 대대적으로 재편, 확장, 분화되었다.

둘째, 수세식 화장실에서는 ‘물’, 재래식 공동 화장실에서는 ‘규칙’이 번역 능력을 대폭 상실하였다. 동시에 비인간 행위자들은 주민의 감각을 통해 체화된 인지를 끌어내며 주민 사이의 갈등도 촉발시켰다.

셋째, 주민들이 비인간 행위자와 상호작용하며, 정책이 구성한 ‘근대성, 위생’을 재구성하는 가운데 연결망은 수세식에서 재래식으로 재배치되고 뒤처리 물품에 대한 감각 역시 세밀하고 다양해졌다.

넷째, “혁명, 정치”와 같은 ‘거대한’ 층위들이 용변이라는 일상에 투영되면서, 대변과 대변이 끌어들이는 비인간 행위자들은 통치성의 회복과 조각을 동시에 이뤄내기도 했다.

주제어: 북한, 일상, 용변, 화장실, 사회기술사, ANT

\* 용변(用便)은 대소변 그 자체 혹은 배설행위를 의미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d8ccdf8ae1448179e733a46261bf389>(검색일: 2022.10.27).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2748).

\*\*\* 이 논문은 2022년 11월 25일 ‘2022 한국과학기술학회 후기 학술대회: 과학기술에서의 배제와 차별’에서 발표한 “차등적 화장실 인프라스트러처와 북한 주민의 기술사회적 실천: “사회주의”적 기술배치와 근대/전문성의 역설”을 발전시킨 글임을 밝힌다.



## I.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질문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대소변(大小便)과 함께 살아간다. 용변 활동은 생명 활동이자 참을 수 없는 생리적 욕구이다. 대변과 소변은 생존의 증거로서 그 물질-담론적 속성을 통해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신진 대사의 찌꺼기 혹은 피동적 객체가 아니라 행위능력(agency)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유기물인 대변은 일정한 과정을 거쳐 비료의 원료로 활용되지만, 상온 이상의 온도에서 공기 중에 노출되면 구더기와 해충을 발생시킨다. 특유의 냄새와 독성을 적시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전염병 피해를 가속·증폭시킨다. 이런 성질이 언어에 반영되면서, ‘똥’이라는 단어는 격하, 불행 등의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가령, 북한에서 “똥짐”은 “《값나가지 않는 무거운 짐》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sup>1)</sup>

이러한 특성은 용변 활동과 뒤통이가 이루어지는 별도의 공간 ‘화장실’을 요청한다. 화장실은 물질을 사람과 지상공간으로부터 분리시킨다. 때문에 화장실에는 물리적·독립적 실체(공간)가 아니라 물질-담론적, 사회-기술적, 구조-행위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연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망, 저장조/정화조, 전력, 물, 관련 규범 및 정책, 자재, 대소변, 뒤통리 물질, 개인의 위생의식과 실천 등이 있다.

용변을 둘러싼 사회기술적 양상은 고정불변하지 않고 역사적, 개인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왔다. 용변 공간(화장실), 변 처리법(재래식, 수세식), 휴지 및 변기 등 용변 관련 물품, 보건위생 문화 및 실천 등은 각 사회의 문화, 보건(시스템 및 시설)의 과학기술적 양태, 국가 정책, 개인의 사회경제적

1)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ㄷ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미상, p. 583. 2022년 11월 4일 현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확인한 결과, 센터 내 아카이브에서 제공 중인 『조선말대사전』은 출간연도 미상이다.

지위 및 위생의식 등이 그러하다. 가령, 상하수도 시스템이 발달했던 로마에서는 목욕탕과 함께 겨울철 온돌난방이 되는 수세식 공중화장실(forica)이 존재했다. 반면, 중세 유럽에서는 하수도망의 부재는<sup>2)</sup> 물론, 배설물이 건물 바깥 거리로 떨어지도록 변기를 부착하기도 했으며, 눈에 보이는 부분만 청결의 대상으로 단정하고 물을 기피하였다.<sup>3)</sup> 이러한 사실들은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물을 통한)보건위생’의 개념이 ‘서구+근대’라는 특정 조건에서 재구성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기술적 특성과 역사성을 고려하면서, 이 연구는 고난의 행군 전후 상당한 물질-담론적 변화가 일어나는 북한 사회에서 주민-대소변-화장실 연결망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배치 되었는지 읽어내고자 하였다. 북한의 “화장실 문화” 혹은 보건위생 ‘수준을 평가’하는 ‘서구 근대’적 시선을 최대한 지양하고, 대신 인간-비인간의 세밀한 연계양상에 주목함으로써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사와 민중과학사 일부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력과 상수도 공급상황이 악화되고 사회의 다양한 작동방식이 기존과 달라지는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고 이에 대응하여 주민들이 어떻게 화장실을 관리 및 개조하고 용변을 뒷처리했는지, 일련의 과정에 개입한 비인간(대소변, 화장실, 물질, 정책, 인식 등)은 주민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용변의 물질-담론적 지위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기록하였다.

## 2. 연구 설계

연구의 시간적 대상은 고난의 행군이 지난 2000년대 이후이나, 필요에 따라 그 이전 시기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방법은 통계자료 검토, 북한당국의 검열과 통제를 거쳐 발간된 ‘공간문헌(公刊文獻, formality literature)’분석, 심층면담이다. 공간문헌이나 통계로 접하기 어려운 일상생활 경험은 심층면담에서 주

2) 조르주 비가렐로 지음, 정재근 옮김, 『깨끗함과 더러움』, 경기: 돌베개, 2007, p. 288.

3) 조르주 비가렐로, 위의 책, p. 232.

로 수집하고 가능한 경우 교차 검증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모집단 자체가 대체로 접경지역 출신이지만, 최대한 다양한 거주지(도농, 지역), 여행 등의 경향이 포착될 수 있도록 40명을 섭외하였다. 지역별로 양강도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함경북도(10명), 평안남도(7명) 순서이며 평양, 황해남도, 함경남도 등도 포함한다. 최종 거주 시점은 2010년대 초반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2010년대 후반(9명), 2010년대 중반(7명)이 그 뒤를 잇는다. 용변생활 경험의 시점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최종 거주시점과 일치한다. 주 거주지는 농촌, 도시 각 20명이다. 모든 면담자가 재래식 화장실 경험이 있으며, 수세식 화장실 경험자는 18명이다. 8명은 직업적, 개인적 사유로 지역 간 이동이 잦았다.

〈표 1〉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이름	최종 거주 시기	주 거주지	이름	최종 거주 시기	주 거주지
A	2000년대 중반	평안남도	U	2010년대 초반	평안남도
B	2010년대 중반	함경북도	V	2010년대 초반	양강도
C	2010년대 초반	양강도	W	2010년대 후반	함경북도
D	2010년대 초반	양강도	X	2000년대 중반	함경북도
E	2010년대 중반	양강도	Y	2010년대 후반	황해남도
F	2010년대 중반	양강도	Z	2010년대 중반	양강도
G	2000년대 중반	평안남도	a	2010년대 후반	양강도
H	2000년대 후반	양강도	b	2010년대 후반	황해남도
I	2000년대 후반	평안남도	c	2010년대 후반	양강도
J	2010년대 초반	평안남도	d	2010년대 초반	평안남도
K	2010년대 초반	양강도	e	2010년대 초반	평안남도
L	2010년대 후반	양강도	f	2000년대 중반	함경북도
M	2010년대 초반	양강도	g	2010년대 초반	함경북도
N	2010년대 초반	함경북도	h	2010년대 후반	평양
O	2010년대 중반	양강도	i	2000년대 후반	양강도
P	2000년대 중반	함경북도	j	2010년대 초반	평양
Q	2000년대 후반	함경북도	k	2010년대 후반	양강도
R	2010년대 초반	함경북도	m	2000년대 후반	양강도
S	2010년대 중반	함경남도	n	2010년대 중반	양강도
T	2010년대 초반	평양	r	2010년대 후반	함경북도

출처: 저자 작성

면담 시간은 1인당 최소 1시간 30분부터 3시간까지 다양하며 횟수는 최대 3회,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 기본 질문들을 중심으로 반구조화 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소개와 함께 통계자료 및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북한 화장실의 기본적 구성에 관해 다루었다. 3장에서는 재래식, 4장에서는 수세식 화장실 연결망의 재배치를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뒤처리 물품, 유료 화장실, 인분 전투 등을 통해 연결망에 개입한 통치와 화폐, 이에 대응하는 주민 실천 양상을 살펴보았다.

### 3. 통계자료 및 이론적 배경 검토

#### (1) 화장실 보건위생의 조건과 주요 요소

화장실, 곧 대소변을 운반·처리할 공간을 둔다는 것은 물질-담론적 조건을 요한다. 1절에서 언급했듯, 서기 226년 로마 공중화장실은 1천 여 곳이었으며 귀족의 집과 황궁에는 가림판 없이 긴 좌석이 벽에 부착되고 그 아래로 물이 흐르는 화장실이 있었다.<sup>4)</sup> 반면 대다수 주거지에서는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이런 화장실이 부재했다.<sup>5)</sup>

중세를 지나 근대 유럽국가에서는 청결관이 변화하면서, 공중 보건위생을 위해 수세식 화장실을 건설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1954년 프랑스 인구조사에 따르면, 표본집단 13,400,000채 주택 중 약 25% 정도만 실내 수세식 화장실을 지니고 있어 정부가 강력하게 주택건설 기준을 마련하여 실내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라고 하였다.<sup>6)</sup> 그 결과 노인 및 농촌을 제외하고, 1973년 주민의 70%, 1982년 85%가 실내화장실을 갖춘 주택에 거주하게 되었다.<sup>7)</sup>

4) 버지니아 스미스 지음, 박종운 옮김, 『clean 클린』, 서울: 동아일보사, 2008, pp. 139~140.

5) 버지니아 스미스, 위의 책, p. 141.

6) 앙투안 프로 지음, 김기림 옮김, “가족과 개인.” 필립 아리에스·조르주 뒤비 편, 『사생활의 역사 5』, 서울: 새물결 출판사, 2006, p. 104.

이처럼 화장실은 개인적 공간이자 공중보건위생의 필수조건이며, 정부와 국가의 기술-자금력이 크게 동원되는 문제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사회·기술적 조건에 맞게 화장실을 확충하고 기존 화장실을 개선하는 작업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방치된 대소변은 세균을 매개하고 물·토양·작물 등을 오염시킬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화장실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유지보수의 용이성이다.<sup>8)</sup> 공동 화장실의 경우 순번제에서 한 사람이 청소를 하지 않기 시작하면 기간 성실하던 사람들도 점차 청소를 꺼린다.<sup>9)</sup> 화장실은 작은 부속(호스, 손잡이, 밸브 등)일지라도 수리와 교체가 지연되면, 회복할 수 없이 오염되기 쉽고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이런 경향이 더 강하다.<sup>10)</sup> 재래식 화장실은 강·하천, 우물 등으로부터 20m, 부엌과는 6m 이상 떨어져야 한다.<sup>11)</sup> 수세식은 상하수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재래식에 비해 효과가 낮고 오염 위험도 높다.<sup>12)</sup> 이 외에도 사회문화적 요소(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 종교, 지역적 미신, 대소변 재활용에 대한 거부감, 보건습관), 사용자의 물리적 특성(사용자의 신체적 특성, 장애시설 필요성), 기호(대변습관 및 선호도), 물(용수 접근성, 지하수위, 오폐수 방식), 자재(활용가능한 지역 자재), 토양, 기후 등의 다양한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sup>13)</sup>

## (2) 북한의 화장실/분뇨처리 관련 통계

2022년 10월 30일 RISS 검색결과 기준, 북한의 화장실, 주민의 용변생활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UNICEF가 2017년 8,500여개 가구, 32,455 가구원을 표본집단으로<sup>14)</sup> 화장실 유형, 대소변 처리

7) 양투안 프로, 위의 책, p. 105.

8) 손주형, 『개발도상국 보건위생: 화장실』, 파주: 한국학술정보, 2021, p. 71.

9) 손주형, 위의 책, p. 55.

10) 손주형, 위의 책, p. 55.

11) 손주형, 위의 책, p. 64.

12) 손주형, 위의 책, p. 56.

13) 손주형, 위의 책, p. 63.

방법 등에 대해 조사(이하 ‘MICs’)하였다. 화장실의 유형별 분포는 지역 및 도시-농촌 여부에 따라 다소 다른데, 대체로 수세식-하수도망(Piped Sewer System) 화장실, 수세식 정화조 화장실(Flush/Pour flush Septic Tank), 슬라브가 있는 재래식 구덩이 화장실(Pit latrine with Slab)이 주를 이룬다.<sup>15)</sup>(〈표2〉).

〈표 2〉 도시-농촌, 지역별 개선된 화장실 시설 유형

(단위: %)

구분	수세식			재래식	개선된 시설 사용률
	하수도망	정화조	저장조	자봉이 있는 저장조	
도시	67.2	6.4	1.9	15.8	91.6
농촌	9.5	14.5	3.9	44.1	72.3
양강도	23.9	25.7	0.0	35.1	84.7
함경북도	45.1	18.2	0.4	23.8	88.2
함경남도	35.9	18.0	1.0	29.7	84.8
강원도	33.9	10.9	3.7	33.6	82.4
자강도	57.4	5.2	0.1	12.8	79.8
평안북도	45.9	5.0	0.0	28.8	79.7
평안남도	43.4	2.9	4.3	30.2	81.0
황해북도	29.9	10.8	13.0	31.2	85.0
황해남도	28.2	5.5	1.4	38.2	73.2
평양	83.2	6.7	0.4	8.2	98.7
합계	44.6	9.6	2.7	26.8	84.1

출처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2018, p. 151.

화장실이 아닌 경우(‘개선되지 않은 시설’)는 ‘슬라브가 없거나 개방된 구덩이’가 가장 많다.<sup>16)</sup> 도시일수록 수세식-하수도망 화장실 비율이 높고, 농촌일

14)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2018, pp. 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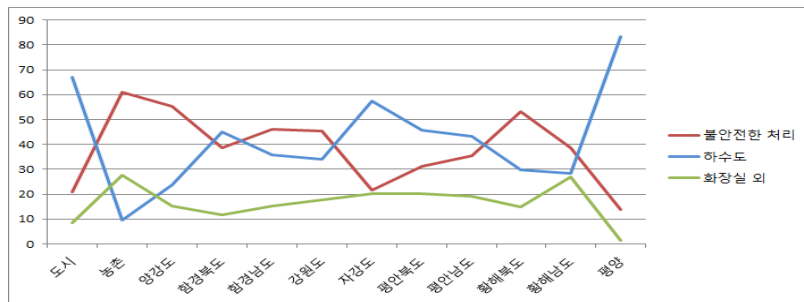
15) 통풍형 구덩이 화장실(Ventilated Improved Pit latrine), 수세식 구덩이 화장실(Flush to Pit Latrine), 개방형 구덩이(Open drain)는 비율이 미미하다. 다만 수세식 구덩이 화장실은 황해북도가 13%, 통풍형 구덩이 화장실은 자강도 4.2%로 가장 높다. DPRK and UNICEF, *Ibid*, p. 151.

16) MICs에서의 ‘개선된 시설’을 이 연구에서는 화장실로 통칭하였다. 개선되지 않은 시설은 개별 경험 속에서 밭, 강 등으로 자세하게 표현된다.

수록 재래식 화장실 비율이 확연하게 높다. 특히 황해남도는 재래식 저장조 화장실의 비율이 가장 높다. 수세식 화장실은 양강도와 황해북도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지역과 도시 모두에서 하수도망<정화조>저장조의 순서로 높다. 화장실(개선된 시설) 이용율은 평양이 가장 높고 황해남도가 가장 낮다.<sup>17)</sup>

〈그림 1〉 도시-농촌, 지역별 대소변 처리 유형(안전성)

(단위: %)



원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2018, p. 151.

가구당 단독 화장실의 이용은 전 지역이 90% 이상이며, 평양이 96.8%로 가장 높고, 황해남도가 69.3%로 가장 낮다. 평양과 황해북도를 제외하고는 북쪽 지역일수록 단독 사용율이 높다.<sup>18)</sup>

수세식/재래식 화장실에 배출된 용변은 대체로 도시는 하수관으로, 농촌은 농장으로 간다.<sup>19)</sup> 〈그림1〉을 살펴보면, 하수관 처리의 경우 평양이 가장 높고 양강도가 가장 낮으며, 하수관 설치율이 낮을수록 화장실에서 불안정한 방식으로 처리될 확률이 높다.

17) DPRK and UNICEF, *Ibid*, p. 151.

18) DPRK and UNICEF, *Ibid*, p. 152.

19) DPRK and UNICEF, *Ibid*, p. 155.

## (3) 주민-용변-화장실 연결망의 구성과 ‘번역’

## ① “번역(반역)”의 정치와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북한의 일상세계 연구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20년부터는 행위자-연결망 이론(ANT: Actor-Network Theory)적 접근도 나타난다.<sup>20)</sup> 일련의 연구는 시장화 이후 ICT/전기와 관련한 ‘새로운, 현대적’ 비인간 행위자들의 유입과 그로 인한 시장, 인간관계, 인간-비인간 연결망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논의를 보다 확장하여 ‘오래된’ 비인간 행위자들과 연결망 내부에서의 “번역/반역”에 주목하였다. 일상생활에는 ICT/전기와 달리 개별 물질/기술의 개입만으로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 ‘오래되고 복잡한’ 사안들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가령, 포스트 사회주의 도시에서 상수도/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구원자적 기술/상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 각자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생존한다.<sup>21)</sup> 특히 용변·화장실처럼 물, 전기, 보건위생 등의 여러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인프라)가 관련된 경우일수록 인프라, 인간, 비인간, 물질-사회적 요인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 용변의 일상이란 개별 요소뿐만 아니라 연결망과 번역에 핵심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용변생활 자체가 그간의 논의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못했으며, 사회주의 사례 연구에서도 보건위생은 주로 의료에 초점이 맞춰져 화

20) 2022년 12월 9일 현재까지 RISS 검색 결과 기준, 3건으로 다음 참조. 김경렬, “북한이탈주민의 송금 분석: 행위자-연결망 이론(ANT)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4권 3호, 2021, pp. 107~142; 최선경,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과 시장 활동에서의 ‘신뢰’ 네트워크.” 『현대북한연구』 제24권 1호, 2021, pp. 7~40; 박민주, “북한 주민-전력 연결망의 재구조화와 기술-사회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25권 제2호, 2021, pp. 41~78. 북한 연구에서 ANT 적 접근은 2010년대 초반 동국대학교 분단/탈분단 연구센터에서 시작되었으나 일상생활 ANT 연구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관련하여 다음 참조. 박영자 외,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1/3년) 최종보고서』, 통일연구원(2022; 출판 예정).

21) Schwenkel, Christina, “Spectacular infrastructure and its breakdown in socialist Vietnam”, *American Ethnologist*, Vol. 42, No. 3, 2015, <https://doi.org/10.1111/amet.12145>(검색일: 2022.12.13.); 박민주, “북한 주민-전력 연결망의 재구조화와 기술-사회 변화.” pp. 41-78.

장실에 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다.<sup>22)</sup> 화장실이 사회주의(정치)와 별 관련이 없다고 보고 학술적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을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 이후 중국의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공학적 분석이 주를 이루며,<sup>23)</sup> 해당 사업이 데카르트적 이분법과 발전주의에 경도되어 다양한 맥락을 간과하기에 보다 일원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비판적 분석이 존재할 뿐이다.<sup>24)</sup>

한편, 화장실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MICs 등의 통계조사나 북한 보건위생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근대’의 관점에서 ‘보건위생의 수준을 평가’하는 관점을 유지해왔다. 근대중심의 접근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블랙박스(Black Box)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인간-비인간의 “번역/반역”의<sup>25)</sup> 정치를 간과하게 만든다. 결국 일상이라는 블랙박스를 매우 제한적이고 단순하게 해석하는 한계에 봉착한다.

따라서 용변 생활 혹은 화장실 연결망은 근대적 관점에서의 통계적 평가를 넘어서, 연결망이라는 역동 혹은 번역의 정치에 주목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와 그 행위능력 변화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상생활은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가령, ‘화장실을 더럽게 사용한다’고 묻기 이전에, ‘어떤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화장실을 더럽게 만들었는가?’라고 물을 필요가 있다. 전자가 주민과 그의 위생/도덕 관념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후자는 현상이 빚어진 물질-담론적 조건, 주민 너머의 다른 요인들에 대해 추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2) 소련의 보건위생 정책 전반을 다룬 저작에서조차 화장실에 관한 이야기는 제외되어 있다. 관련하여 다음 참조.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세마쉬코, 신영찬·신나희 옮김, 『소련의 건강보장』, 서울: 건강미디어협동조합, 2017.

23) Cheng, Shinkun, et al., "Toilet revolution in China." *Journal of Environ Management*, Vol. 216, 2018, pp. 347–356, <https://doi.org/10.1016/j.jenvman.2017.09.043>(검색일: 2022.12.13.).

24) Iossifova, Deljana, "Urban (sanitation) transformation in China." In Michael Keith and Andreza Aruska de Souza Santos eds., *Urban transformations and public health in the emergent cit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20, <https://doi.org/10.7765/9781526150943.00010>(검색일: 2022.12.13.).

25) 미셸 칼롱, “번역의 사회학의 몇 가지 요소들: 가리비와 생브리의 만(灣)의 어부들 길들이기.” 브뤼노 라투르 외, 홍성욱 역음, 『인간·사물·동맹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서울: 이음, 2010, p. 87.

## ② ANT의 “번역”개념과 화장실 연결망

ANT, 특히 ‘번역’ 단계의 적용에 관해 엄밀성 논쟁이 있고, 북한 연구는 자료 문제 탓에 4단계를 도식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소 험겁게 ANT를 적용하더라도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ANT의 선구자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와 존 로(John Law) 등이 언급한 것처럼<sup>26)</sup> ANT에서는 정합성이 아니라 탈인간중심적 관점이 가장 중요한 접근법이기 때문이다.

미셸 깔롱(Michell Callon)은 번역을 4단계로 분류하였는데,<sup>27)</sup> 이를 주민-용변-화장실 연결망에 적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번역의 첫 단계에서, 특정 행위자는 주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의무통과점(Obligatory Passage Point, OPP)을 발견하고 주도적으로 이의를 제기(problematization)한다. 주민, 대소변, 보건위생정책, 인민반 규칙 등은 ‘화장실’이라는 의무통과점을 지닌다. 주민은 변을 볼 곳, 보건위생정책은 변을 모을 곳, 대소변은 인체 바깥으로 나가 존재할 곳, 인민반 규칙은 전체 구성원이 관리해야 할 곳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화장실을 통해 여러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면서 새로운 동맹/질서/권력이 창출되는 것이다. 이후 특정 행위자는 여러 행위자들의 관심을 끌면서(interressement)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행위자들은 새로운 역할을 상호 합의하고 조정해나가는 등록(enrollment) 과정을 거친다. 화장실의 경우 이용자들에게 노천 구덩이가 아닌 화장실에서 배변하라거나, 비슷한 구조의 화장실을 한 두 개씩 짓기 시작하고, 바닥에 묻은 잔변을 변기 안으로 밀어버려 청소하면서 냄새를 줄이거나 시각적 효과를 얻는 등의 작업이 반복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도적 행위자는

26) Latour, Bruno, “On recalling ANT.” In John Law and John Hassard eds., *Actor Network Theory and After*. Oxford and Keele: Blackwell and the Sociological Review, 1999, p. 15; Law John, “After ANT: complexity, naming and topology.” In John Law and John Hassard eds., *Actor Network Theory and After*. Oxford and Keele: Blackwell and the Sociological Review, 1999, p. 10.

27) 미셸 깔롱, 위의 책, pp. 68~86.

다른 행위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갖게 되고 자기 연결망으로 집결시키는 동원(mobilization) 단계에 이른다. 이 단계에서 화장실은 규격화되거나 비슷한 규모와 방식의 화장실이 널리 퍼지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관행이나 관리규칙 역시 일반화되어 ‘구조화’된 혹은 단일한 블랙박스처럼 보인다. 그러나 연결망 내부에서는 언제나 엇갈린 의견이 나타나 동맹에 금이 갈 수도 있다.

## II. 북한 화장실의 기본 구성과 당국의 정책 설계

북한에서 화장실은 구어체 “변소”,<sup>28)</sup> 문어체 “위생실”로 불린다. 면담자들 대부분 화장실을 “위생실”보다 “변소”로 불렀다고 한다. 조선말대사전은 “변소”를 “사람이 뒤를 보거나 오줌을 누게 만들어 놓은 곳”으로,<sup>29)</sup> 위생실의 두 번째 의미로<sup>30)</sup> “《변소》를 에둘러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한다.<sup>31)</sup> 동 사전에 “위생실”의 동의어로 “화장실”이<sup>32)</sup> 등재되어 있긴 하나, “화장실”이라는 말을 탈북 후 처음 들어봤다는 경우도 있다. 공간문헌을 살펴보면, 1950년대에는 “변소”만 있었고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변소”와 “위생실”을 섞어 사용하다가<sup>33)</sup> 1990년대 이후 “위생실”만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당국은 1958년 5월 4일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전후하여 전

28) 조선시대 양반은 측간, 서민은 뒷간이라 불렀고 ‘변소’는 중국식 단어가 일제강점기인 20세기 초반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8590>(검색일 2022.10.20).

29)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 대사전』 ㅂ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미상, p. 670.

30) 첫 번째 의미는 “여성들의 위생관리를 위한 설비가 갖추어진 방(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 대사전』 ㅀ편, p. 1582)”이며 “상임 간호원의 일상적인 방조 밑에 (중략) 개별 처치실, 탈의실, 목욕탕 등 (중략) 준비된 약품들이 있는 공간이다(“여성 개별 위생실을 운영.” 『노동신문』 1956년 8월 8일).

31)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 대사전』 ㅀ편, p. 1582.

32)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 대사전』 ㅎ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미상, p. 401.

33) “가을철에는 수도, 변소, (중략) 위생실을 리용”과 같이 두 용어를 동시에 언급한다. “가을철 집 거두기.” 『천리마』 1989년 9호.

염병 예방 차 집중적으로 화장실, 우물, 목욕탕 등 위생시설을 개조, 확충,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루빠(단속반), 위생선전과 경쟁운동, 상호검열, ‘위생반장’ 제도 등이 시행되었고 “유희자재를 이용”<sup>34)</sup>한 화장실 건설개조사업에서 미진한 지역은 비판을 받았다. 초기 북한에서 화장실은 위생통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회중증은 (중략) 우선 변소가 철저히 위생적으로 개조관리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서는 분조를 비침투성으로 개조하며 주위 토양의 오염을 극력 방지 (중략) 인분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중략) 부패된 인분이라 할지라도 채마밭에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sup>35)</sup>

세미나르를 준 후 22개의 검열 그루빠를 조직하여 56개의 인민반에 각각 파견하였다 (중략) 변소개조, 파리, 모기, 쥐 박멸 (동략) 등을 인민반별로 호상검열하여<sup>36)</sup>

제7작업반장 김옥녀 동무는 위생반장의 사업도 겸하게 되었다 (중략) 위생개조에서 이기자면 (중략) 변소 여덟 개를<sup>37)</sup>

평남도 평원군 (중략) 변소는 65% 이상이 개조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과장일 뿐만 아니라 (중략) 대부분이 다시 고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다 (중략) 100%로 개조되었다는 변소, 우물, 목욕탕들은 제 규격대로 된 것들이 절반을 넘지 못하며<sup>38)</sup>

황해북도 봉산군 위생사업은 (중략) 조사탐구해보지도 않은채 일거에 기존 위생시설들을 허물게 했다. 지어 어떤 부락에서는 공동변소 하나만을 지어놓고 개인변소를 죄다 헐어 (중략) 위생개조실적은 변소가 겨우 18%, 그 중 개인 변소는 10%<sup>39)</sup>

34) “지방자재를 적극 동원하여 위생 환경을 개조.” 『노동신문』 1958년 7월 19일.

35) “회중증을 예방하자.” 『노동신문』 1959년 9월 12일.

36) “구체적인 지도와 철저한 총회.” 『노동신문』 1958년 6월 28일.

37) “부지런한 위생반장.” 『노동신문』 1958년 6월 14일.

38) “위생지도 사업에서 책임성을 높이자.” 『노동신문』 1959년 3월 7일.

1960년대부터는 화장실 관련 기사 자체가 노동신문에 크게 등장하지 않고 가끔 환절기 화장실 관리에 대한 요구 정도가 천리마에 나타날 따름이다. 제도의 효과와 더불어 1960년대 후반부터 북한당국이 김일성 독재체제 구축에만 열중했던 측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화장실은 범주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용자 범위에 따라서는 가구 단독 화장실, 아파트 공동 화장실, 학교·역사·시장 등 시내 공공 화장실로 나뉜다. 용변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재래식과 수세식으로 분류된다.<sup>40)</sup> 다만 후술하듯 실제 주민생활에서 한 가지 유형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화장실 이용 경험의 차이가 가장 큰 범주는 용변처리 유형(재래식/수세식)으로, 다음 표에 두 유형 사이의 주요 차이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공동 화장실의 경우 요금 지불 여부에 따라 무료 화장실과 유료 화장실로 나눌 수도 있다.

〈표 3〉 북한 화장실의 유형(변의 처리방식에 따른 분류)

유형	재래식 단순 저장조 화장실 (Basic Pit Latrine)	수세식 화장실 (Sanitation facility with flush)
설치 장소	농촌, 구식 아파트 공동화장실, '땅집(단독주택, 단층집)', 대다수의 공공 화장실	도시, 신식 아파트, 당 기관 등의 주요 건물 공공 화장실
건물 내외	거주/공공 건물 바깥	거주/공공 건물 내(ensuite)
물사용	물을 사용하지 않음	물을 사용함
자재	시멘트, 나무	도기, 타일
오물 처리	저장 후 퇴비처리 혹은 수거	정화조(septic tank), 하수도망, 저장 후 퇴비처리 혹은 수거

출처: 저자 작성

39) “주저 앉은 위생사업.” 『노동신문』 1958년 8월 30일.

40) 앞선 MICs 통계에서 수세식 정화조, 수세식 저장조, 통풍형 저장조, 슬라브 저장조 등을 파악하였으나, 가장 보편적 재래식과 수세식으로 구분한다.

## 1. 재래식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은<sup>41)</sup> 가장 일반적인 화장실 유형이다. 농촌, 상하수도관이 없는 경우, 상하수도관이 있지만 실내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 “(단층) 땅집” 등이 주거 건물 외부에 재래식 화장실을 둔다. 아파트와 하모니카 주택은 대체로 공동 화장실을 사용한다. 지면에 큰 구덩이(저장조)를 하나 파고 그 위로 나무, 시멘트, 벽돌 등을 이용하여 디딜 공간을 한 개(단독) 혹은 여러 개(공동) 만든 뒤 벽을 세운다.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벽으로 만든 것도 있고, 벽이라는 게 콘크리트 아니고 벽돌로 그런 데서 그냥 다 구덩이 파 놓는 거죠. 그 밑이라 이게 구덩이 다 보이죠(c).

나무로 판 것도 많고, 아파트 공동 변소는 이제 콘크리트로 만들었는데 대부분 시골이나 땅집에서는 나무판자로 화장실을 하죠(N).

화장실은 단층이나 아파트나, 아파트도 구식이나 현대식이나 관계인데, 1995년 이후에 지은 아파트는 일단 변기(수세식)가 있었고 2010년대에도 단층은 다 재래식이예요. 변소라 그러지(U).

시골은 다 옛날식 구덩이. 엄청 깊어서 사람 설 정도, 2미터 정도 커요(H).

아파트 공동 화장실은 인원 대비 변기 수가 부족하여 출근·등교 시간이 되면 화장실이 붐빈다. 배변이 급하지 않으면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직장·학교에서 해결한다. 면담자들은 “몇 세대에 몇 칸이라고 규정된 바가 없(n)”고 세대

41) 재래식 화장실이란 “대소변을 씻어보내지 않고 바닥에 쌓이도록 하는 전통적 방식의 화장실. 주로 생활 공간과 떨어진 곳에 만든다.” 국립국어원, [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702814&viewType=confirm](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702814&viewType=confirm)(검색일: 2022.11.04.).

당 변기 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화장실 부족이 공통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딱 몇 칸 정해진 게 없어요. 많으면 열 개 있는 데도 있고. 인구 밀도가 많은데 화장실을 아침 시간에 본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줄 서야 돼요. 바쁜데 당장 나가야 되는데. 아예 먼저 달려 가던가 다른 곳 찾아서 가야 하는 거예요(r).

30세대에 한 4개? 사람이 많으니까 잘 사용 안 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학교 가면 바로 화장실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h).

북한당국의 직주근접 배치 정책상, 출근 및 등교 시간에는<sup>42)</sup> 다수의 인원이 화장실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국 주도의 정책이 대체로 작동하던 고난의 행군 이전에 지었던 아파트조차 변기 수의 규정은 부재하다. 인구비례도, 정수도 아니다. 아예 규정이 없거나 있다 해도 준공 필수조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는 화장실에 관한 북한당국의 기본 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 2. 수세식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은 급·배수와 이를 위한 전력공급이 전제된다. 다만 상하수도망이 갖춰져 있어도 지역과 건축 시점에 따라 수세식 화장실이 아닐 수 있다. 별채에 두는 재래식과 달리 수세식은 실내에 있으며 가구 단독 화장실이며 화변기(와변기)가 일반적이다. 상수도화를 추진하던 1970년대 중반 김일성이 농촌문화주택을 신축할 때 “수도, 수세식변소, 목욕탕 같은 시설을 다 갖추어 도

42) 통상적으로 오전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출근을 완료하도록 한다. 통일교육원, 『2014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4, p. 296.

시주택에 못지않게” 하라고 했으나,<sup>43)</sup> 앞서 <표2>에서 나타나듯 평양·대도시 아파트 일부에서만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상수도 공급이 잘 되었을 때도 상수도와 변기가 직접 연결된 형태가 아니라 변기나 연결된 통에 물을 직접 부어 용변을 내리는 방식이다.

1970-1980년대 평양 해방산 호텔 같은 데 양변기 있었어요(l).

(1980년대, 당시 살던 도시에서) 타일로 해 가지고 칸칸이 물은 수동으로 그저 가서 붓고 그랬죠(d).

평양이나 대도시 지역에 있는 좀 상급 부대에 수세식, 건물 안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부대들은 다 밖에 있죠(G).

제일 좋았던 건 평양 화장실이요. 쭉그리고 앉고 위에 통 같은 게 있고 줄 잡아 땡기면 물이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공공 화장실도 평양이 좀 더 깨끗한데 중심지역 중구역 이런 쪽만 개발되고 선교구역이나 그런 쪽에는 재래식 변소가 많죠(h).

화장실은 평양이 좀 낫고. 물은 잘 내려갔어요. 양강도는 아직도 변소 하거든요. 밑에 내려다보이고(l).

당위원회 청사 화장실인데 물 써요. 전기도 잘 오고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따로 관리하지는 않았어요(g).

차등적 상수도 공급정책에 따라<sup>44)</sup> 평양, 중심부, 대도시일수록 수세식이 일

43) 김일성, 『김일성전집』 53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2004, p. 414.

44) 박민주,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물/위생 시스템의 재구조화 - 2000년 이후 북한 물/위생 시스템의 혼종적 전환 -." 『북한학연구』 제17권 제1호, 2021, pp. 349~392.

찍, 더 많이 사용되어온 것으로 드러난다. 일부 면담자에 따르면, 특각과 현지 지도를 위한 “1호 화장실”에 일찍부터 좌변기를 두었고 2000년대에는 비데를 수입했다고 증언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화장실의 전반적 상황은 1950년대의 위생통치 혹은 촘촘한 보건위생 정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된다. 다양한 종류의 변기(비데가 설치된 양변기, 물을 붓는 수세식 화변기, 아침마다 이용자들이 줄을 서 있는 재래식 변기)가 공존하는 만큼, 연결망 역시 상당한 가변성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

### Ⅲ. 재래식 화장실 연결망의 재배치

#### 1. 더러움의 발견, ‘규칙’ 행위자의 속성

재래식 화장실은 가구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개별적 보건위생 의식 및 실천, 가족 생활 패턴 등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과밀한 데다가 고난의 행군 이후 유지·보수가 미미해진 공동 화장실은 문제가 심각해졌다. 북한당국이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혁명을 운운했지만, 그렇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었다. 적체·부패된 대소변, 냄새가 나는 공간, 오래된 바닥과 벽 등 비인간 행위자의 존재가 크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대패로 밀지 않은 판자를 오래 쓰면 꺼멓게 되거나 누렇게 되거나. (중략) 여러 명 쓰면 여름에 변이 많이 차서 찰랑찰랑하고 막 튀고 진짜 더럽거든요. 비 들어가고 벌레 끼고 애들이 거기 돌 넣으면서 장난치고, 화장실을 두 집이 같이 쓰는데 사이가 안 좋아요. 인분 옮기고 청소하는 것도 일인데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n).

게으르면 인분을 제대로 푸지 않고 벌레에 대해 아예 신경을 안 쓰는 집도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화장실 보기 더럽죠(O).

일터, 공장과 마을, 가정과 인민반을 위생문화적으로 (중략) 낫고 뒤떨어진 생활관습과 인습들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건전하고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확립 (중략) 숭고한 도덕적 의무로 받아들이고 이 사업에 전군 중적으로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sup>45)</sup>

먹고살기 바쁘니까요. 전에는 그렇게 더럽지 않았었어요. (중략) 인민반에서 순번으로 관리했는데. 나중에는 소변 본 물이 고여서 신발 더러워지고 냄새는 엄청나고. 애들이 보면 옆에 대변 묻어있고(r).

아파트 공동변소는 관리가 안 돼요. 아기들은 명중을 잘 못한다고 해야 되나. 청소는 거의 안 했던 거 같아요. 당번제가 있는데 하라고 해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g).

고난의 행군 전까지 공동 화장실은 붐볐지만 그래도 본연의 기능을 그럭저럭 유지하였다. ‘(청소)규칙’ 행위자 덕분에 화장실 연결망은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였다(〈그림2〉 왼쪽). 인민반장 집에 인분 푸는 도구를 갖추고 순번제로 청소를 했으며 역전 등 공공 화장실도 대체로 관리가 잘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배급제가 중단되고 당장 생계가 급박해지면서, ‘규칙’ 행위자는 번역능력을 대폭 상실하고 화장실 연결망에 연루된 다양한 인간-비인간의 특성도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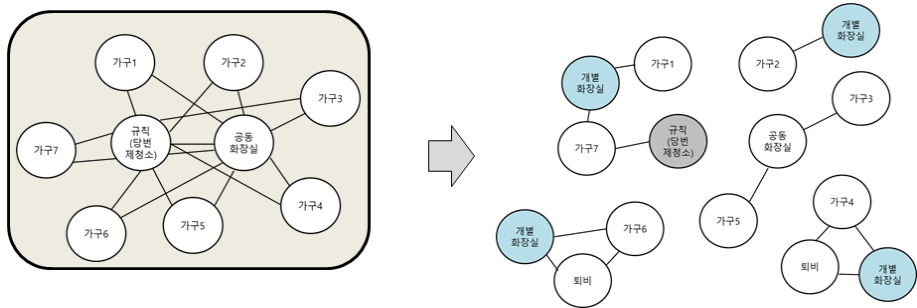
대소변과 그 물리적 성질, 깊이 파여 많은 양의 용변을 담고 있는 구덩이, 사용자의 특성 혹은 인간의 취약성(공동시설을 더럽게 사용하는 사람, 대소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어린이들, 오염된 변기와 벽(자재)) 등은 그 물질성과 존재감을 크게 드러냈다

45) 김경숙, 『조선사회과학 학술집 84 절학편: 사회주의 생활문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p. 215.

## 2. 비인간 행위자들의 다양한 영향력: 재배치와 주민 실천

비인간 행위자들은 주민의 시각, 후각, 청각을 자극하며 인지의 체화를 추동하였다. 대소변 탓에 전염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비인간 행위자들이 ‘더러움/오염’에 대한 주민의 감각을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단독 화장실을 짓도록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또한 비인간 행위자들은 청소를 둘러싼 주민 사이의 갈등도 촉발시켰다. 그 결과 연결망은 <그림2>처럼 재편되었다. 공간이나 물질적 조건에 따라 가구 1과 7처럼 두 집이 함께 화장실을 쓰거나, 가구 3과 5처럼 형편에 따라 공동 화장실을 계속 이용하기도 한다. 농촌 일부에서는 품귀해진 비료가 가구4, 6처럼 퇴비 이용을 목적으로 단독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sup>46)</sup>

<그림 2> 고난의 행군 이후 재래식 공동 화장실 연결망의 재배치



재래식 화장실 연결망에서는 지역성과 화장실의 기술성 역시 상당한 행위능력을 발휘한다. 특히 농촌은 도시와 달리 가용 여유 면적이 있고 재래식 화장실 자체가 큰 기술을 요하지 않아 성인 남성 혼자 화장실을 지을 수 있도록 돕는다. 2층짜리 아파트의 앞마당은 1층, 뒷마당은 2층 가구들이 개별 화장실

46) 이에 관해서는 5장 3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을 지어 사용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적체된 변 특유의 냄새와 물성이 화장실 자재(목재, 벽돌 등)에 스며들면서, 기존의 단독 화장실을 다시 짓기도 한다.

집 앞에 좀 나오면 변소라고 지어놨어요. 공용변소. 근데 우리는 공용변소 안하고 그거 더러우니까 제 집서 따로 지어놓고(C).

아빠가 밖에다 나무로 화장실을 만들더라고요. (화장실은)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개별) 화장실이 없는 집은 없었어요(O).

화장실이란 게 우리 집 마당 앞에 널판자로. 땅 이렇게 파고, 퐁 떨어지게. 아무나 다 해. 판자 세워놓고 막아놓는 건데(D).

이사가면서 새로 지었어요. 화장실도 쓰다 보면 낡고 위치가 불편하면 새로 짓거든요. 웬만한 건 남자들이 그냥 푹푹푹 (중략) 철통을 넣거나 철통이 없다면 가득 찼을 때 옆으로 흘러나오게(n).

바로 떨어지는 식이 아니라 미끄럼틀처럼 45도로. 위에서 제가 보면 그계(변이) 안 보여요. 깨끗한, 45도 시멘트 바닥만 보이는 거죠(h).

재래식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도시 아파트 일부에서는 소변의 경우 바닥의 하수도관을 이용하고 “큰 것만 밖에 나가서” 해결하기도 한다. 고층에 거주하는데 전력 부족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겨울, 야간 등에 이런 전략을 사용한다. 전력, 용변 등의 비인간 행위자는 주민의 감각과 인지를 통해 그 행위능력을 발휘하면서 주민으로 하여금 변의를 대변과 소변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도록 한다. 주민들은 용변의 물질성에 따라 공간을 분화하고 실내에 ‘변기 없는 용변(소변)공간’을 창출해낸다. h의 경우처럼

대변에 부착된 ‘불쾌함’의 속성은 공간/시설 개조를 통해 대변을 주민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드는데 일조한다.

재래식 화장실과 용변은 주민의 용변/공간전략뿐만 아니라 민속지식, 화학약품, 식물, 재 등의 행위성 발휘를 돕기도 한다.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저장조를 매번 비울 수 없어 여름철에는 변의 부패와 해충발생을 막기 힘들다. 주민들은 살충이나 소독능력을 지닌 화학약품의 힘을 빌리게 되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내부에서 화학약품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다수 주민들은 자연에 존재하는 식물을 적극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옛날에는 우화독스 냄새가 센 게 있었어. 머리에 이도 많고 화장실이란 냄새나는 데 소독했지. 근데 원료를 생산 못 하잖아. 냄새 나니까 풀을 덮는 거야 파리 붙으니까(A).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면 아궁이에서 재를 떠다 뿌려놓고. 벌레 죽이는 건 아니고 냄새 나고 보기 흉하니까(B).

깨끗이 관리는 잘했는데 그래도 뻥하죠. 여름에 파리랑 많이 끼잖아요. 산에 가서 할미꽃 뿌리를 따다가 똥통에 집어넣으면 구더기랑 파리가 다 죽어요. 독성에 (잘못) 먹고 많이 죽사해요. 박하, 박새풀. 독미나리, 독버섯(P).

독풀, 할미꽃풀 태워다가 넣으면 벌레가 죽어요. 벌레 나기 전에 넣어야 비료를 만들죠. 백사랑 우화독사(우화독스)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런 북한산은 적고 중국에서 오는 것들 있어요. 약 치면 벌레들 기어나오고 다 죽죠. 파리, 모기 너무 많아요(E).

재를 뿌리지 않으면 산에 가서 박새풀 뿌리째 뽑아다 놓으면 벌레들이 죽어요(C).

50-60대(1960년대생) 참여자의 증언을 고려할 때, 일제강점기 전부터 구성된 민속지식이 고난의 행군 이후 상당한 행위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때 지식은 체계화 된 근대식 학교교육이나 학문체계가 아니라 오히려 지식과 큰 연관이 없어보이는 ‘재래식’ 화장실 연결망, 교사가 아닌 부모, 활자가 아닌 구전, 교과서가 아닌 실천과 협력한다.

아빠가 풀을 꺾어오셔서 벌레가 생길 때마다 거기 놓으셨어요. 약초 냄새가 나니까 화장실 갔을 때 풀 냄새가 더 췌어요(F, 20대).

여름에 벌레가 생기거든요. 벌레가 안 생기는 풀대를 꺾어다 놓거나 애기 똥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거죠. 아빠가 했었어요(O, 30대).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좀 밝아서 내 아이 때 하는 걸 봤죠(E, 50대).

엄마가 다 알려주지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것 같아요. 박새 할미꽃 독버섯 독미나리 먹으면 죽는다는 거. 그렇게 내리내리.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부모가 다 알려주니까 알지(P, 60대).

비인간 행위자들은 특유의 향으로 변 냄새를 덮고, 해충을 죽이고 변의 점성을 감소시켜 주민의 청소를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P의 증언처럼 비인간의 살충·소독 능력이 반드시 주민에게 이로운 측면으로만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우화독소 독약이에요. 대개 가루로 벌레 죽일 때 쓰는데 잘못하면 사람도 죽인다더라고요. 발에도 뿌렸어. 냄새 지독하지. 근데 그때는 마스크라는 걸 모르잖아. 그냥 수건으로 가리고 장갑 끼고(b).

석회 뿌리면 일단 파리들 없어지니까. 우화독소 그런 (위험한) 것들 쓰는 거예요(a).

가령 석회는 산화칼슘(CaO, 생석회)으로, 물과 만나 발열 혹은 발화할 만큼 위력을 지닌다.<sup>47)</sup> 40대 이상 면담자 다수가 언급한 소독약 “우화독스(위하독스, 메틸 파라티온, parathion-methyl)”<sup>48)</sup> 살충 농약이자 환경오염 물질로 피부 접촉 혹은 흡입 시 중추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sup>49)</sup> 이처럼 주민과 살충물질의 상호작용은 벌레, 안전 장비, 계절환경(여름) 등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연합 속에서 일어나며, 주민은 원하는 바 살충과 소독효과와 함께 기대하지 않은 유해성에 노출되기도 한다.

#### IV. 수세식 화장실 연결망의 재배치

##### 1. 비인간 행위자들과 주민의 전략

수세식 화장실 연결망에서는 ‘물’이 번역을 주도해왔다. 앞서 살펴본 바, 평양이나 대도시 주요 건물 화장실에서는 북한당국의 우선적 공급 덕분에 고난의 행군 이후에도 그 결절을 잘 유지해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열악해져, 제대로 수세식을 사용하기 어려워졌고 주민들의 다양한 전략이 등장하면서 연결망은 <그림3>과 같이 재배치 되었다.

47)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자주 쓰며, 전염병 시 동물의 사체에 덮어 살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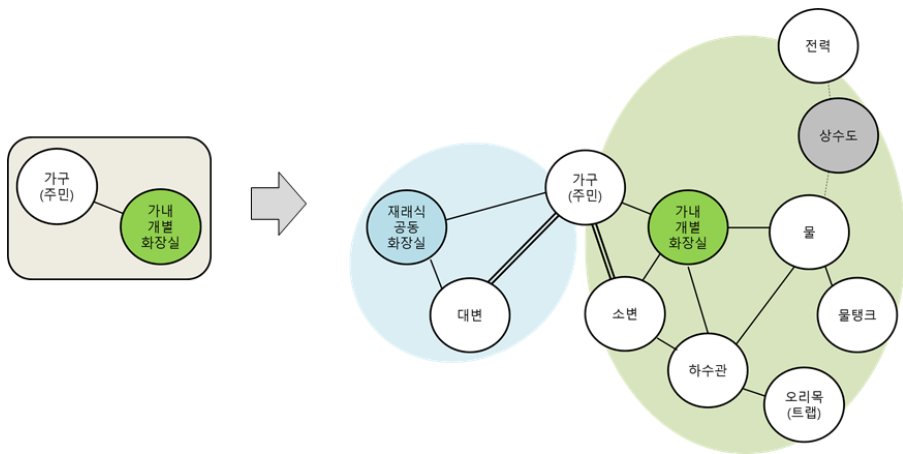
48) ‘위’ 발음이 어려워 구전된 듯한 ‘우화독스’가 조선말 대사전에 표기, ‘위화독스’는 병기되어있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 대사전』 O 편, p. 1252.

49) 미 국립보건원 화학약품사전, <https://pubchem.ncbi.nlm.nih.gov/compound/Methyl-parathion#section=Safety-and-Hazards>(검색일: 2022.11.0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신축 혹은 개조 시 집 내부에 “물탱크(시멘트 수조)”를 만들고 물을 저장해 둔다. 유의미한 행위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샤워시설/공간을 철거하고, 전력(전기에너지)가 없어도 물탱크(위치에너지)의 능력을 통해 물을 조달하도록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집이 클수록 화장실을 크게 지어요. 여기는 크게 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는 방 하나만큼. 물탱크가 높고 화장실 절반을 차지해요(m).

<그림 3> 고난의 행군 이후 수세식 단독 화장실 연결망의 재배치



샤워 부스 못 쓰고 공간만 차지하니까 뜯고 물탱크로 개조하거든요. (화변기도) 오래되면 금 가고 깨지고 누렇게 되서 교체하고(g).

(예를 들어) 과학자 살림집 지어주는 것처럼, 화장실이 여기(한국) 30평대 아파트 안방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i).

소변은 “물 한 바가지 정도”의 행위성을 요구하지만 식수조달조차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은 “샤워하고 물을 받아서(j)” 용변을 내릴 정도로 물을 아껴쓰

다. 그러나 점성과 무게가 큰 대변은<sup>50)</sup>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미미한 환기시설과 노후한 하수도관은 냄새 문제를 심화시킨다. 특히 -자의 오래된 직선형 관은 오물과 냄새의 역류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1984년에 이미 “위생실에는 배풍기까지 달려있었다”<sup>51)</sup>고 서술한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노후관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초반에는 “고층살림집에서는 (중략) 위생실을 다시 손질하고 깨끗이 하여 냄새가 나지 않게”<sup>52)</sup>하라는 주민이 등장할만큼 수세식 화장실은 계륜이 되었고, 주민들은 연결망에 재래식 화장실을 끌어들이기 시작한다.

호텔이나 여관 화장실에 물이 없어서 일 못 보고 밖에 나가 싸요. 변소라고 물 쓰는 데가 아니라 땅 파서 내려다 보여. 물이 없으니까 평양도 아주 바쁘다고. 평양 가서 화장실 들어가 앉으면 제일 행복한 순간이야. 찾기 힘들고 지저분하고. 물이 없으니까(j).

물이 잘 안 나왔어요. (대변은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불편해서 근처 학교에 가서 막 하고 그래요(g).

아랫집에서 관이 막히니까 윗집으로 오물이 다 올라온 거예요(l).

큰 거 보는 데는 수세식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화장실이 집 안에 있으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편하긴 했는데 싫었어요(h).

주민들은 자신의 변의를 구분하고 변의 물질성에 따라 용변 공간을 분화/확장/개조하였다. 소변보다 점성이 높고 부피가 크며 후각적 자극이 큰 대변은

50)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94호(2022. 7. 12. 일부개정)에 따라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 에서 사용수량이 6L 이하여야 한다.

51) “인민의 도시 주체의 도시 평양(2).” 『천리마』 1984년 8호

52) “봄철 위생월간사업에 펼쳐 나서자.” 『천리마』 2001년 3호

주민으로 하여금 집 안의 수세식 화장실을 두고 외부에 나가 재래식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소변이 노후관과 만나 집안 내부에서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자, 2010년대 이후 북중접경도시 일부에서 “오리목(대)”라고 부르는 S자형 트랩이 연결망에 등장하였다.

오리목대라고 화장실에 붙여서 소변 볼 수 있게 (고층 아파트에서) 밤에 화장실 보러 밖에 나가기 그렇잖아요. 보통 냄새가 올라오는데 이 거는 냄새가 안 올라오게끔(r).

S자 모양. 오리목이라고 했어요. 그걸 넣으면 냄새가 잘 안나요(L).

이 기술/상품은 물, 소변, 가스 및 냄새의 역류를 감소시켜주어 재래식 화장실 접근성이 낮은,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고층 아파트 거주자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소변을 보게끔 도움을 주었다.

## 2. 자극과 실망

냄새, 용변(잔변), 전력 등의 비인간 행위자는 그간 개인이 평양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와 환상을 파쇄하는 데 일조한다.

쓰던 (재래식) 화장실이 훨씬 낫거든요. 집안 (수세식) 화장실은 어찌지 할 정도로 냄새가 더 나고 통풍이 안돼요. 답사 간 야영소도 그런(수세식) 화장실을 썼는데. 10층 이상 엘리베이터도 없이 걸어 올라다니느라 힘들었고, 너무 더럽고 냄새나서 평양에 대한 실망을 너무 했어요. 모든 게 엉망이고 안 좋고 냄새도 너무 심하고(n).

“혁명의 도시”에 대한 실망은 시각뿐만 아니라 후각, 통증 등의 직접적·신체

적 자극을 통해 증폭되고 체화된다. 수세식 화장실을 둘러싼 인간-비인간 연결망은 북한 내에서 ‘위치지어진 지식(situated knowledge)’<sup>53)</sup> ‘평양’으로부터 환상을 탈각시켰다. 공간문헌에서도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 (중략) 위생실이 나무랄 데 없다고<sup>54)</sup>” 하는 대목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혁명, 정치”와 같은 ‘거대한’ 층위들이 일상영역에 투영될 때, 신체의 감각과 유리된 채 기계적으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사뭇 통치와 ‘무관’해보이는 변, 냄새 등의 비인간 행위자들이 주민의 감각을 경유하여 통치에 대한 (체화된)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외국계’ 수세식 화장실은 원래 물이 담당했던 번역의 역할이 제대로 가동되면서 외부 세계의 자극을 직접 전달해주시기도 한다. 존재감을 상시 드러내던 변, 오물, 냄새와 같은 행위자들이 순간적으로 대량의 깨끗한 물과 함께 사라진다.

호주에서 투자한 병원 화장실. 좌변기를 처음 봤어요(g).

(중국하고 합영한 회사였는데) 타일로. 좌변기 여기처럼 물 내려요. 엄청 깨끗하죠. 회사 안은 중국처럼 관리해요. 가능하면 회사 화장실을 쓰고, 다들 부러워하고 회사에 좀 넣어달라 하고(a).

a의 말처럼, 이러한 자극은 부러움을 동반하고 직장배치를 연결해달라는 청탁으로도 연결된다. 이처럼 화장실은 냄새, 물, 변 등의 비인간 행위자를 통해 통치, 일자리(직장)를 심신일원론적으로 인지하는 시공간으로서도 의미를 지닌다.

역설적이게도, 수세식 단독 화장실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재래식 공동 화장

53) ‘위치지어진 지식’ 개념은 지식이 고정불변하지 않고 특정 상황에서만 지식으로서 인정받는다는 의미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 참조. Haraway, Donna, "Situated Knowledges: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Vol. 14, No. 3, 1988, p. 590.

54)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노동신문』 2014년 6월 6일.

실을, 재래식 공동 화장실을 이용하던 주민들은 재래식 단독 화장실을 연결망에 끌어들었다. 이 ‘근대적 화장실의 역설’은 주민들이 비인간과 결합할 때, 원론적 ‘근대성’이 아니라 생활 감각에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 내리는 거는 깨끗한데 자주 청소를 안하면 냄새나고 빠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연에서 하는 거는 청소를 안 해도 되고 자연 하수가 다 되고 땅으로 들어가면 거름이 되니까. 한 집 식구만 사용한다 그러면 그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K).

서구·근대중심적 시각에서는 이러한 연결망 재배치가 일부 ‘(전근대로의) 퇴행/역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재래식’을 무조건 열위에 두는 방식은 지정/지경학적 조건에 따른 일상의 구성성을 간과할 뿐이다. 화장실-연결망에서 비인간 행위자들은 주민과 상호작용하며 세밀한 감각을 전달하고 행위능력을 발휘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북한 주민은 정책이 지향했던 ‘근대성’을 해체한 뒤 필요에 따라 요소들을 취사선택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 V. 통치-화폐의 개입과 주민 실천의 역동

고난의 행군 이후 통치-화폐의 개입에 따라 화장실 연결망에 새로운 행위자(화장지, 유료화장실, 인분 전투 등)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상호작용이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 1. 화장지 생산재개와 사회문화적 메타פור서의 뒤처리 물품

북한의 종이/펠프 사정은 열악하여<sup>55)</sup> 2010년대 이후 도시에서도 상당수가

신문, 교과서, 학습장 종이 등을 재활용하여 용변을 닦는다. 물자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농촌은 옥수수 속껍질을 많이 쓴다.

다 쓴 학습장이나 교과서로 해요. 휴지 사서 쓰기에는 돈 아까우니까. 휴지 없는데 변을 봐야 되는 일이 허다해요. 여름에는 콩 잎사귀나 잎사귀 큰 거, 진짜 어려우면 나무 꼬챙이로 하는 사람도 있고.<sup>56)</sup> 옥수수 오사리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없으니까(n).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산 재생지 생산은 재개되었고 생산량도 점차 증가하였다. 중국산도 유입되었으나 일반 주민이 지속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워 주로 장거리 여행, 외출 시 휴지를 구매한다.

OO시장에서 화장지를 담배갑보다 작은 봉투에 넣어서 팔아요. 하나에 백 원, 칠십 원. 화장실에서 1-2번 쓸 정도. 대동강 무슨 두루마리 휴지가 있었는데 집에서 쓰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생산되는 양이 많지 않고 중국산은 2009년-2010년쯤 나왔어요(g).

국산 휴지 누런 키친타올 같은 거 (재생지) 부드러웠어요. 조금씩 쓰는 거죠. 2008년도부터 그거를 계속 썼어요. OO지역은 많이들 썼어요. 신문지도 많이 없었고 학습지 낡은 거(h).

머칠씩 기차 탈 때는 화장지를 사요. 집에서는 길주 팔프 화장지, 보드라운데 먼지 날리고 시커먼 화장지가 싸게 나왔어요. 2013년도쯤부터 밥술 떠다는 사람들이 섞어 쓰고. 전에는 진짜 돈 많은 사람만 썼어요. 시골은 아직 강냉이 오사리 쓰는 데도 있다던데 사람들이 도태되다 못해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r).

55) 김경원 외, 『북한의 산업』, 서울: KDB 산업은행, 2015, pp. 689~690.

56) 나무 꼬챙이는 조선시대에도 쓰던 방법이다.

농촌에서는 화장지의 존재감이 크지 않은데, 시장이 흔치 않고 주민들도 농사일로 바빠 새로운 상품을 접할 기회도 없다.

(1980년대 초반) 해산에서는 신문 있으면 잘라서 변소에 접어 놓는데 황해 남도는 조금 미개해요. 농촌은 완전 색이 떨어졌어. 종이도 없고 옥수수 껍질 깨끗한 거 화장지 대신 그거 쓰는 거예요(Z).

종이가 고급이니까. 강냉이 오사리 속으로 노트랑 종이를 만들어요. 그걸 다래끼에 담아서 변소간에 걸어놓고 쓰고. 대부분 그렇지(b).

없는 집은 천 누더기를 다 찢어서. 손에 딱 쥐면 이렇게 구멍이 숭숭한 누더기를 갖다 댔어요. 그걸 이 사람 쓰고 저 사람 쓰고(c).

흥미롭게도, 뒤처리 물품은 해당 주민의 거주지역,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늠하는 지표로 역할한다. ‘하얀’ 강냉이 속껍질은 ‘누런/시커먼 화장지, 신문’보다 “색이 떨어진다”거나 “자연으로 도태된다”고 표현되는데, 이는 북한 사회에서 “색” 혹은 ‘문명’의 감각이 공장, 근대, 도시적 성질과 선택적으로 접합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사실 근대위생의 관점에서 신문, 학습지 등은 비벼서 사용할 정도로 거칠고 세균도 많은 “오염” 물질이다. ‘강냉이 오사리’보다 더 깨끗하다거나 향문 건강에 좋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뒤처리 물품에 매개되는 근대성 지향은 용도나 효과가 아니라 물질의 기원, 곧 그것이 도시/공장/근대의 세례를 받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 2. 유료 화장실의 등장: 통치, 화폐와 ‘규칙’ 행위자의 선택적 결합

북한 전반적으로, 농촌은 물론 도시에서도 공공 화장실이 많지 않다. 이런

점은 공간문헌과 증언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릉라도식당 실내위생실을 더 꾸려주어 손색없이 하여야 한다<sup>57)</sup>

강에서 김치를 씻다가 변이 마려워요. 그러면 밑에 가서 하는 거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화장실이 없어요(Q).

식당에서도 화장실 제공이 안 돼요. 큰 거는 집에서 해결하고. 정 할 수 없으면 밖에 나와서 찾아요. 살던 데서 생활이 반복되니까 어디 가면 화장실이 있다고 알잖아요(r).

공공 화장실의 경우 3장에서 언급한 ‘규칙’ 행위자의 중요성이 역전과 학교에서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학교 화장실은 관리감독을 자주 하고 동원도 잘 되기 때문에 대체로 규칙이 잘 작동한다. 반면 역전 화장실은 시장화 이후 유동인구가 많아졌지만 청소에 대한 급부는 사라졌다. 농촌이면 퇴비로 쓰지만 도시는 딱히 처리할 곳도 없다.<sup>58)</sup> 군대의 경우, 화장실 청소가 체벌의 하나로 생각될 정도라고 한다.

당번병이 청소해야죠. 아니면 훈련이나 뭘 잘못해서 체벌로 공동변소 청소하고. 세제나 약품은 없습니다. 먼지나 쓸어내는 정도(G).

역전 공동변소 너무 냄새나요.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데 돈 주는 일도 아니니까 열성적으로 하지 않죠. 시내에서 변을 누가 쓰겠어요.<sup>59)</sup> 엉망이에요. 여기저기 묻고 밖에 써놓고. 공동 화장실은 그런 게 많아요. (중략) 그래도 학교

57) “대동강 푸른 물이 전하는 인민사랑의 전설.” 『노동신문』 2013년 10월 15일.

58) 벌레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건조/가공/처리를 해야 퇴비로 쓸 수 있다.

59) 인분전투와 가족사육으로 인해 도시에서도 인분이 귀해졌지만(다음 절 참조), 역전 화장실에서 인분전투를 위해 직장 단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변을 조달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화장실 규모 상 구덩이가 깊은데다가 개인이 일상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담아 나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화장실은 검열 계속 내려오니까. 학생, 학부형 동원해서 청소하고(n).

4월부터 6월까지는 뭐 위생 월간이다 해가지고 청소하고 그랬거든요.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높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보니까 (h).

2장에서 살펴본 1950년대 상황과 달리, 고난의 행군 이후 외국인 출입이 잦은 나진과 평양 일부 시장에서 위생이 통치, 화폐와 결합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역 인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수세식 유료 화장실은 주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주민이나 외국인이 사용한다.

장마당마다 달라서 철판이 해져서 다 보이는 곳도 있고. OO은 웬만한 시장이랑 달라서 지붕이 돛처럼 다 덮여 있어요. 외국 사람 대상으로 장사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들었어요. 수세식이고 깨끗하고. 밭거나 끈 당기면 통에서 물이 내려오는 방식이었어요. (국돈) 100원, 중국 사람은 (중국돈) 0.5원. 운영은 시 인민위원회에서 하고 비싸진 않았는데 시장사람들은 뒤에 담배 공장 (무료)화장실 가요(g).

화폐개혁 전에도 유료화장실 있었어요. □□장마당에 달려들고 가거든요. 10센트였나 20센트였나. 재래식인데 깨끗하고 사람 없고(h).

북한당국의 이러한 ‘선택과 집중’ 전략은 주민-용변-화장실 연결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용변 일상과 시공간을 경제적 계급에 따라 분화하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

### 3. 대변의 정치경제학: ‘인분 전투’와 주민 실천

고난의 행군 이후 대변의 물질-담론적 지위 역시 재구성되었다. 비료가 품

귀해지자 유기물인 대변이 그 영향력을 확장한 것이다. 북한당국은 “인분전투”를 도입하였고 도시 아파트에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 농촌 주민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대변의 ‘퇴비’적 기능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대변은 거래 급부 혹은 농사 밀천으로 작용하여 농촌 주민들로 하여금 단독 화장실을 만들고 도난 방지 자물쇠를 달며 초면의 손님을 환대하도록 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화장실을 우리 가족만 쓰는데 북한에서는 똥이 되게 귀해서요. 비료로 써서, 농사에 쓰라면 그게 진짜 돈만큼 중요하거든요(Q).

인분이 귀하니까 화장실에 문 잠귀 놓고 그랬다(X).

화장실 옆에 퇴비장을 같이 해서 흘러나와도 퇴비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시내 같은 데서 짐승 키우면 인분도 먹여요, 돼지 같은 거(n).

겨울이 되면 나라에서 퇴비를 월 얼마씩 하라고, 애들이 돈 얼마씩 내야 되니 훔쳐가는 거예요. 잠귀 놓는 집도 꽤 많았어요(f).

변소는 서로 들어가면 좋아해. 인분을 주니까, 너무 좋아해요(c).

(화장실이 급하면) 지나가다 “계십니까? 쉬고 갑시다” 이러면 “들어오세요.” 아직 정이 남기도 하고(Y).

아저씨가 간부들 집 화장실만 관리해요. 직업은 아니고 그냥 시키는 거죠. 인분도 그 아저씨가 챙겨서 팔고(h).

북한당국이 ‘인분전투’를 요구하자 대변은 주민의 실천 전략을 통해 다른 비인간 행위자들 - 안면관계, 전화, 기온, 서류(“영수증, 확인증”), 담배, 오물들

-을 연결망으로 끌어들었다. 대변과 일련의 행위자들 덕분에, 배급기준은 그 초점을 ‘쌀-배분’에서 ‘대변-헌납’으로 전이시켰고 존재감을 회복하며 행위능력을 재구성하였다..

사무소 같은 데 가서 몇 키로 했다는 확인증 받아서 학교에 내요. 불법적으로 파는 건 아니고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마른 인분이 시내에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게 해요. 때 되면 간부들이 자식 고생하지 말라고 전화 한 통 하죠 “확인증 좀 끊어줘”(h).

사람이 얼마큼 먹어야 그만큼 인분을 생산하는 기계가 되겠어요? 1월 3일부터 3개월 동안 1주에 2-3번씩 50kg 지대 하나 내라는데. 1년 내내 먹은 변으로도 안되니 사람들이 갈탄 재를 4월부터 텃밭에 묻어놨다가 변물, 쌀뜨물, 밥찌기, 대변, 흙 섞고. 그렇게 안 하면 충족을 못해요. 무게를 달아는 안 봐요. 겨울에는 얼었으니까 공간이 생기면서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r).

겨울마다 과제가 나오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힘든 분량이라. 배급표 급수에 따라 7급 가두, 학생은 200-300kg. 직장이 많은데 1급 1톤, 2급 0.8톤, 3급 0.5톤. 직장 자동차로 공동 화장실에 단체로 가서 신고. 작업반장이 “나 오늘 여기 가서 할 건데” 하면 돈 있는 집 애들은 안 가고 담배 주고 0.5톤-1톤. 그럼 반장이 갖다 떼와요(g).

대변은 통치성을 회복시키고 동시에 조각하였다. 통치는 대변에 기댔으로써 그 맥을 유지하며, 주민은 대변-통치의 상호작용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대변의 혼종적 정치성은 통치를 넘어 시장, 주민의 일상, 비인간, 근대성, 위생, 공간 곳곳에 작동하고 있다.

## Ⅵ. 결론

이 연구는 기술사회사적 시각에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주민의 용변 생활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ANT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용변-화장실 연결망의 구성과정을 기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기 북한에서 화장실은 그 어느 때보다 위생통치와 긴밀하게 상호작용 하였다. 정책은 평양, 대도시, 중심부에 우위를 두고 사용자보다 공급자 편의를 위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그 탓에, 고난의 행군을 전후하여 배급제, 상수도, 전력 등의 유관 인프라가 마비되자 수세식 화장실 연결망에서는 ‘물’ 행위자가, 재래식 공동 화장실 연결망에서는 ‘규칙’ 행위자가 역량을 대폭 상실하였다. 화장실에 작용하던 (위생)통치성은 비인간 행위자들의 “반역”과 함께 급격히 느슨해졌다.

물, 전력, 대소변, 냄새, 잔변, 자재, -자형 관, 지역성, 기술 등 비인간 행위자들은 주민의 감각을 자극하며 체화된 인지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주민 사이의 갈등도 촉발시켰다. 주민들은 자신의 변의를 구분하고 변의 물질성에 따라 용변 공간을 분화/확장/개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유해성이나 한계에 노출되기도 한다.

재배치는 역설적으로 이루어져 수세식 단독 화장실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재래식 공동 화장실을, 재래식 공동 화장실을 이용하던 주민들은 재래식 단독 화장실을 연결망에 끌어들었다. “혁명, 정치”와 같은 ‘거대한’ 층위들이 용변이라는 일상에 투영되면서, “혁명의 도시”로 위치지어졌던 ‘평양’은 그 환상이 탈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서구·근대중심적 시각에서의 ‘퇴행/역행’이 아니라 주민들이 비인간 행위자와 상호작용하며 그간 정책이 환상한 ‘근대성’을 해체한 뒤 필요에 맞게 요소들을 재배치한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문명’의 감각은 공장, 근

대, 도시성과 선별적으로 접합하였고 북한당국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용변의 일상과 시공간을 경제적 계급에 따라 분화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대변과 대변이 끌어들이는 비인간 행위자들은 통치성의 회복과 조각을 동시에 이뤄내기도 했다. 후속 연구를 통해 대변 혹은 더 많은 비인간 행위자들의 물질-정치적 역량과 북한이라는 세계가 더 세밀하게 조명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경숙, 『조선사회과학 학술집 84 철학편: 사회주의 생활문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 김경렬, "북한이탈주민의 송금 분석: 행위자-연결망 이론(ANT)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4권 3호, 2021.
- 김경원 외, 『북한의 산업』, 서울: KDB 산업은행, 2015.
- 김일성, 『김일성전집』 53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2004.
-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세마쉬코, 신영잔·신나희 옮김, 『소련의 건강보장』, 서울: 건강미디어 협동조합, 2017.
- 미셸 깔롱, "변역의 사회학의 몇 가지 요소들: 가리비와 생브리외 만(灣)의 어부들 길들이기", 브뤼노 라투르 외, 홍성욱 역음, 『인간·사물·동맹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서울: 이음, 2010.
- 박민주,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물/위생 시스템의 재구조화 - 2000년 이후 북한 물/위생 시스템의 혼종적 전환 -," 『북한학연구』 제17권 제1호, 2021.
- 박민주, "북한 주민-전력 연결망의 재구조화와 기술-사회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25권 제2호, 2021.
- 박영자 외,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1/3년) 최종보고서』, 통일연구원 (2022; 출판예정).
- 버지니아 스미스 지음, 박종운 역, 『clean 클린』, 서울: 동아일보사, 2008,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7·8·9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미상.
- 손주형, 『개발도상국 보건위생: 화장실』, 파주: 한국학술정보, 2021.
- 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94호(2022. 7. 12. 일부개정)
- 양투안 프로 지음, 김기림 옮김, "가족과 개인." 필립 아리에스·조르주 뒤비 편, 『사생활의 역사 5』, 서울: 새물결 출판사, 2006.
- 조르주 비가렐로 지음, 정재곤 옮김, 『깨끗함과 더러움』, 경기: 돌베개, 2007.
- 최선경,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과 시장 활동에서의 '신뢰' 네트워크," 『현대북한연구』 제24권 1호, 2021.
- 통일교육원, 『2014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4.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2018.
- Cheng Shikun et al., "Toilet revolution in China." *Journal of Environ Management*, Vol. 216, 2018.
- Haraway, Donna, "Situated Knowledges: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nd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Vol. 14, No. 3, 1988.

Iossifova, Deljana., "Urban (sanitation) transformation in China." *In Urban transformation and public health in the emergent cit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20.

Latour Bruno, "On recalling ANT." In John Law and John Hassard eds., *Actor Network Theory and After*. Oxford and Keele: Blackwell and the Sociological Review, 1999.

Law John, "After ANT: complexity, naming and topology." In John Law and John Hassard eds., *Actor Network Theory and After*, Oxford and Keele: Blackwell and the Sociological Review, 1999.

Schwenkel, Christina, "Spectacular infrastructure and its breakdown in socialist Vietnam." *American Ethnologist* Vol. 42, No. 3, 2015.

"대동강 푸른 물이 전하는 인민사랑의 전설." 『노동신문』 2013년 10월 15일,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노동신문』 2014년 6월 6일.

"주저 않은 위생사업." 『노동신문』 1958년 8월 30일.

"지방자재를 적극 동원하여 위생 환경을 개조." 『노동신문』 1958년 7월 19일.

"화충증을 예방하자." 『노동신문』 1959년 9월 12일.

"여성 개별 위생실을 운영." 『노동신문』 1956년 8월 8일.

"구체적인 지도와 철저한 총화." 『노동신문』 1958년 6월 28일.

"부지런한 위생반장." 『노동신문』 1958년 6월 14일.

"위생지도 사업에서 책임성을 높이자." 『노동신문』 1959년 3월 7일.

"가을철 집 거두기." 『천리마』 1989년 9호.

"인민의 도시 주체의 도시 평양(2)." 『천리마』 1984년 8호

"봄철 위생월간사업에 떨쳐 나서자." 『천리마』 2001년 3호.

국립국어원

[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702814&viewType=confirm](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702814&viewType=confirm)(검색일: 2022.11.04.).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d8ccdf8ae1448179e733a46261bf389>(검색일: 2022.10.27.).

미 국립보건원 화학약품사전

<https://pubchem.ncbi.nlm.nih.gov/compound/Methyl-parathion#section=Safety-and-Hazards> (검색일: 2022.11.04.).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8590>(검색일: 2022.10.20.).

Abstract

Socio-Technical History of Daily Life and Toilet of North Koreans:  
Relocation of People-Excreta-Toilet Network after a  
“March of Hardship”

Min Ju Park(Research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life of North Koreans in the toilet after the march of hardship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logical social history and A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y is designed to aim for supplier convenience rather than equality, but differential, and residents' position. Therefore, when related infrastructure such as electricity, distribution system, and water supply became paralyzed, the resident-toilet network was reorganized extensively.

Second, 'water' in flush toilets and 'rules' in conventional communal toilets have significantly lost their translation ability. And, non-human actors drew embodied cognition through the senses of the people, triggering conflicts between the people.

Third, as people interacted with non-human actors and reorganized the "modernity and hygiene" composed by the policy, the network was relocated from flush to conventional, and the sense of goods for wiping-excreta was also differentiated.

Fourth, "revolution, politics" were projected into the daily life of feces, non-human actors such as feces achieved both restoration of governance and sculpture.

Keywords: North Korea, Daily Life, Toilet, ANT, Excreta, Socio-Technical History

투고일: 2022년 11월 4일, 심사일: 2022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19일